

비즈쿨에 대한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인식 연구

박종운[†] · 이용식

([†] 부경대학교 · 부산기계공고)

A Study of Perceptual Differences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Existence of The BizCool

Jong-Un PARK[†], Yong-Sik LE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machanical high school

(Received Feburary 20, 2006 / Accepted March 7, 2006)

Abstract

This study is supposed to grasp how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BizCool) that has been set as an example since April, 2002 has changed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values or courses and then as the result of it, to get the early outcome of The Bizcool.

The extent of the model schools mainly concentrated in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department has to be spreaded to the students of various departments. In addition, diversification of the teaching material would be able to support the accomplishment of the suitable The Bizcool. The effectiveness of The Bizcool has been proven in various parts today, so its application is being magnified gradually. Also it is expected that many schools will adopt this program from now on. The Bizcool that has been executed to enhance the vision and self-confidence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for their foundation, needs first of all, persistent support, investment and administration, and through these processes it will contribute to change the awareness about social unemployment problems and the vocational high schools.

key words :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Bizcool, Social unemployment problems

I. 서론

최근, 실업고등학교의 졸업자 진로현황을 살펴 보면, 1990년대 이후에 취업률은 계속 하락하는 반면, 진학률은 상승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진학률이 취업률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의 경우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중 62.3%가 진학을 하는 반면, 취업자는 32.9%에 불과하였다(정철영, 2005). 이렇게 취업률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취업기피와 대학진학 욕구의

[†] Corresponding author : 051-620-6162, pjun9017@pknu.ac.kr

증대로 볼 수 있다.

한편 실업계 진학을 기피하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서서히 실업계를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실업계 학교의 진학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방안의 하나로 나온 것이 비즈쿨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경제와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장래 도전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여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교육이다. 또한 이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인격을 닦아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즈쿨은 2003년까지 50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2004년 30개 학교를 추가로 시범 운영하였다. 이렇게 시행한 비즈쿨 운영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진로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02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온 비즈쿨이 해당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진로 등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로서 비즈쿨의 초기 성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비즈쿨을 통해 실업계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길을 제시해 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이 비즈쿨을 통해 가치관이나 진로 등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2004년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비즈쿨(BizCool)을 시행하고 있는 3

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300명과 비즈쿨을 실시하지 않는 고등학교 4개교 400명, 총 7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구분	학교	계열	배부(매)	회수(매)	회수율(%)
창업교육 실시	인천디자인고등학교	공업계	100	91	91
	인천부평공업고등학교		100	90	90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100	93	93
	계		300	274	91.3
창업교육 미 실시	경남한일전산여고	공업계	100	68	68
	인천청학공업고등학교		100	100	100
	인천계산공업고등학교		100	100	100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	100	75	75	
계		400	548	85.75	
총계			700	617	88.14

<표 2> 조사 대상자의 변인별 특성

구분	표본(명)	백분율(%)	
성별	남	499	80.9
	여	118	19.1
학년별	1학년	121	19.6
	2학년	247	40
	3학년	249	40.4
창업교육 실시유무	유	274	44.4
	무	343	55.6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할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먼저 예비 문항을 작성하였다. 예비문항은 중소기업에서 제작된 설문지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 구성은 <표 3>와 같이 진로 의식, 창업 인식, 창업 교육에 대한 기대와 평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설문의 각 항목들을 동일한 리커트식 5단계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설문지 신뢰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조사결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진로 의식의 영역은 0.817, 실업계 고등학생의 창업 인식은 0.831, 실업계 고등학생의 창업 교육에 대한 기대 및 평가 영역은 0.821로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설문지는 700부중에서 617부가 회수되었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ver10.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먼저 각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응답자의 만족도와 흥미도의 경향을 알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성별, 학년별, 비즈니스 실시 여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하였다.

<표 3> 설문지의 문항 구성과 내용

영역	내용	문항	신뢰도
진로 의식	1. 진로에 대한 고민 여부 2. 졸업 후 진로계획의 구체성 3. 직업에 대한 성공 자신감 4.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준비성 5. 졸업 후 희망직업에 대한 결정도 6. 학교의 진로지도 도움여부 7. 수업내용의 도움여부 8. 교과이외의 진로교육 여부 9. 개인적 도움이 되는 진로교육 여부 10. 창업지식 정도 11. 학교 외 기관에서의 진로상담 여부 12-13. 보수가 희망직종에 미치는 영향	13	0.817
창업 인식	14. 창업에 대한 관심도 15-16. 창업지식의 습득경로 17. 창업 성공인에 대한 관심도 18.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성 19-20. 창업 시기에 대한 고려도	7	0.831
창업 교육에 대한 기대 및 평가	21. 교내창업교육의 실업문제/인력난에 대한 기여여부 22. 교내창업교육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여부 23. 교내창업교육의 자존감/자신감 고취에 대한 기여여부 24. 교내창업교육의 진로선택에 기여여부 25. 교내창업교육 실시 시 참여여부 26. 교외창업교육 실시 시 참여여부	6	0.821
계		26	0.813

III. 연구 결과

1. 실업계 고등학생 진로의식의 차이 분석

1) 진로에 대한 고민 여부 분석

진로에 대한 고민 여부를 분석해 보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은 2.9%, “보통” 16.7%, “그렇다” 80.4%로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년과 창업교육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 분석에서는 2학년과 3학년이 차이를 보였으며,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고민한다”는 답변이 86.9%였고,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은 75.2%로서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진로에 대한 고민 여부 분석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P
		(%)	(%)	(%)	(%)	(%)		
성별	남자	1.0	1.6	17.4	32.9	47.1	4.23	0.80
	여자	1.7	2.5	13.6	37.3	44.9	4.21	
학년	1학년	0.8	0.8	16.5	38.8	43.0	4.22	0.019*
	2학년	1.6	3.2	20.2	31.2	43.7	4.12	
	3학년	0.8	0.8	13.3	33.7	51.4	4.34	
창업교육유무	실시	0.7	2.2	10.2	36.5	50.4	4.34	0.007
	미실시	1.5	1.5	21.9	31.5	43.7	4.15	
계		1.1	1.8	16.7	33.7	46.7	4.23	

* p < .05

2) 졸업 후 진로계획의 구체성 분석

졸업 후 진로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보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은 27.4%, “보통” 44.1%, “그렇다” 28.5%로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은 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과 창업교육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은 “계획이 있다”는 답변이 30.2%이지만 여학생들은 21.2%로 남학생이 다소 높았다.

<표 5> 졸업 후 진로계획의 구체성 분석

	성별	전혀	대체로	보통이	대체로	매우	평균	P
		아니다	아니다	다.	그렇다	그렇다		
		(%)	(%)	(%)	(%)	(%)		
	남자	4.8	21.4	43.5	22.8	7.4	3.07	0.014*
	여자	10.2	22.0	46.6	17.8	3.4	2.82	
학년	1학년	4.1	22.3	49.6	19.0	5.0	2.98	0.191
	2학년	8.1	19.8	46.6	19.8	5.7	2.95	
	3학년	4.4	22.9	39.0	25.3	8.4	3.10	
창업교육유무	실시	6.6	20.4	42.0	24.1	6.9	3.04	0.577
	미 실시	5.2	22.4	45.8	20.1	6.4	3.00	
계		5.8	21.6	44.1	21.9	6.6	3.02	

* p <.05

3) 직업에 대한 성공 자신감 분석

직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반응이 15.7%, “보통” 46.8%, “자신감이 있다” 37.4%로 약 37%의 학생만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창업교육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감이 있다”가 44.5%이지만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31.8%로 다소 낮았다.

<표 6> 직업에 대한 성공 자신감 분석

	성별	전혀	대체로	보통이	대체로	매우	평균	P
		아니다	아니다	다.	그렇다	그렇다		
		(%)	(%)	(%)	(%)	(%)		
	남자	2.2	12.8	47.5	27.1	10.4	3.31	0.226
	여자	4.2	14.4	44.1	32.2	5.1	3.19	
학년	1학년	5.0	14.0	46.3	27.3	7.4	3.18	0.210
	2학년	4.0	13.0	46.2	25.9	10.9	3.27	
	3학년	12.9	47.8	30.5	8.8	3.35		
창업교육유무	실시	0.4	9.9	45.3	33.9	10.6	3.45	0.000*
	미 실시	4.4	15.7	48.1	23.3	8.5	3.16	
계		2.6	13.1	46.8	28.0	9.4	3.29	

* p <.05

4)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준비성 분석

졸업 후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 학생은 23.1%, “보통”은 35.7%, “알고 있다”는 43.3%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창업교육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7>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준비성 분석

	성별	전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평균	P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	(%)	(%)	(%)	(%)		
	남자	3.6	18.2	33.3	29.9	15.0	3.34	0.647
	여자	17.8	45.8	25.4	11.0	3.30		
학년	1학년	0.8	17.4	43.0	24.8	14.0	3.34	0.052
	2학년	4.9	19.0	37.2	26.7	12.1	3.22	
	3학년	2.0	17.7	30.5	33.3	16.5	3.45	
창업교육유무	실시	15.0	33.2	34.3	17.5	3.54	0.000*	
	미 실시	5.2	20.7	37.6	24.8	11.7		3.17
계		2.9	18.2	35.7	29.0	14.3	3.34	

* p <.05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알고 있다”가 51.8%,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36.5%로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이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다.

5) 졸업 후 희망 직업에 대한 결정도 분석

졸업 후 희망 직업을 결정했느냐의 질문에 대한 반응의 결과는 <표 8>와 같이 “아니다”는 16.9%, “보통” 32.7%, “그렇다” 50.4%로서 긍정적인 대답을 한 학생이 절반정도에 불과했다. 성별과 학년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창업교육 유무에 대해서는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이 56.5%, 못 받은 학생이 45.4%로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8> 졸업 후 희망 직업에 대한 결정도 분석

	성별	전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평균	P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	(%)	(%)	(%)	(%)		
	남자	4.6	13.4	32.1	28.3	21.6	3.49	0.349
	여자	1.7	10.2	35.6	32.2	20.3	3.59	
학년	1학년	3.3	9.1	42.1	24.8	20.7	3.50	0.999
	2학년	3.6	15.0	30.8	27.9	22.7	3.51	
	3학년	4.8	12.4	30.1	32.1	20.5	3.51	
창업교육유무	실시	2.2	11.3	29.9	32.8	23.7	3.65	0.005*
	미 실시	5.5	14.0	35.0	25.9	19.5	3.40	
계		4.1	12.8	32.7	29.0	21.4	3.51	

* p <.05

6) 학교의 진로지도 도움 여부 분석

학교에서의 진로지도가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

는가의 질문에 대한 반응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24.6%, “보통” 40.5%, “도움이 된다” 34.9%로 도움이 된다는 학생이 약 35%로서 학교 진로지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년별과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못한 학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 비교에서 1학년이 가장 높은 호응도를 보여 신입생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진로지도와 창업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진로에 대한 관심이 2, 3학년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창업교육 실시 학교는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한 학생이 43.1%인 반면 창업교육 미 실시 학교는 28.3%에 불과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표 9> 학교의 진로지도 도움 여부 분석

	성별	학년	창업 교육 유무	전혀	대체로	보통이	대체로	매우	평균	P
				아니다	아니다	다.	그렇다	그렇다		
				(%)	(%)	(%)	(%)	(%)		
	남자			10.2	14.0	39.7	23.8	12.2	3.14	0.688
	여자			3.4	22.9	44.1	20.3	9.3	3.09	
		1학년		2.5	13.2	45.5	25.6	13.2	3.34	0.003*
		2학년		10.9	19.0	42.1	19.4	8.5	2.96	
		3학년		10.0	13.7	36.5	25.7	14.1	3.20	
		실시		6.9	12.8	37.2	28.5	14.6	3.31	0.000*
		미 실시		10.5	18.1	43.1	19.0	9.3	2.99	
	계			8.9	15.7	40.5	23.2	11.7	3.13	

* p <.05

7) 수업 내용의 도움 여부 분석

학교 수업 내용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반응은 “되지 못한다” 28.5%, “보통” 42.9%, “된다” 28.5%로 학교 수업 내용이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창업교육 유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을 불문하고 수업 내용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창업교육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없는 이유는 아직 창업 교육이 수업 내용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학년별 비교에서는 1학년과 2, 3학년의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의 진로지도에 대한 도움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1학년이 2, 3학년보다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수업 내용의 도움 여부 분석

	성별	학년	창업 교육 유무	전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평균	P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	(%)	(%)	(%)	(%)		
	남자			11.0	18.2	41.9	20.8	8.0	2.97	0.637
	여자			6.8	18.6	47.5	20.3	6.8	3.02	
		1학년		4.1	7.4	56.2	24.0	8.3	3.25	0.004
		2학년		12.6	21.5	38.5	21.9	5.7	2.87	
		3학년		10.8	20.5	41.0	18.1	9.6	2.95	
		실시		10.9	18.2	40.1	21.2	9.5	3.00	0.609
		미 실시		9.6	18.4	45.2	20.4	6.4	2.96	
	계			10.2	18.3	42.9	20.7	7.8	2.98	

* p <.05

8) 진로교육 여부 분석

진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다” 61.1%, “보통” 20.4%, “있다” 18.5%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학교에서 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학년일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고학년일수록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표 11> 진로교육 여부 분석

	성별	학년	창업 교육 유무	전혀	대체로	보통이	대체로	매우	평균	P
				아니다	아니다	다.	그렇다	그렇다		
				(%)	(%)	(%)	(%)	(%)		
	남자			37.5	22.6	21.2	11.0	7.6	2.29	0.249
	여자			44.9	20.3	16.9	11.9	5.9	2.14	
		1학년		54.5	19.0	11.6	8.3	6.6	1.93	0.001*
		2학년		38.5	22.7	23.1	9.7	6.1	2.22	
		3학년		31.7	23.3	22.1	14.1	8.8	2.45	
		실시		31.0	23.7	22.6	15.0	7.7	2.45	0.001*
		미 실시		45.2	21.0	18.7	8.2	7.0	2.11	
	계			38.9	22.2	20.4	11.2	7.3	2.26	

* p <.05

창업교육 실시 학교는 22.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미 실시 학교는 15.2%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9) 창업 지식 정도 분석

창업에 관한 지식 정도는 “없다”라고 반응한 학생은 50.4%, “보통” 35.7%, “있다” 14%로 절반 이상의 학생이 창업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대답했다.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년별, 창업교육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에서는 평균이 1학년 2.12, 2학년 2.55, 3학년 2.71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창업 지식도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교육 유무에서는 실시 학교가 21.5%, 미실시 학교는 7.9%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표 12> 창업 지식 정도 분석

		전혀	대체로	보통이	대체로	매우	평균	P
		아니다	아니다	다.	그렇다	그렇다		
		(%)	(%)	(%)	(%)	(%)		
성별	남자	15.0	33.5	37.3	8.8	5.4	2.56	0.163
	여자	16.9	41.5	28.8	8.5	4.2	2.42	
학년	1학년	25.6	43.0	26.4	3.3	1.7	2.12	0.000*
	2학년	15.0	32.8	38.9	8.5	4.9	2.55	
	3학년	10.8	33.3	36.9	11.6	7.2	2.71	
창업교육유무	실시	1.8	35.8	40.9	14.6	6.9	2.89	0.000
	미실시	26.2	34.4	31.5	4.1	3.8	2.25	
계		15.4	35.0	35.7	8.8	5.2	2.53	

* p <.05

10) 학교외 기관에서의 진로상담 여부 분석

학교 외 기관에서의 진로상담 여부에 관한 설문 결과 “없다” 67.5%, “보통” 16.4%, “있다” 16.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외 기관에서는 진로상담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년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의 경우 평균이 2.15, 여자의 경우 1.90으로 남녀공학이나 여학교보다는 남학교에서 교외 진로상담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78, 2학년 2.23, 3학년 2.14로 2, 3학년이 1학년보다는 교외 진로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학교 외의 진로상담 여부 분석

		전혀	대체로	보통이	대체로	매우	평균	P
		아니다	아니다	다.	그렇다	그렇다		
		(%)	(%)	(%)	(%)	(%)		
성별	남자	42.9	22.6	17.0	11.2	6.2	2.15	0.046
	여자	50.0	26.3	13.6	4.2	5.9	1.90	
학년	1학년	56.2	24.0	11.6	2.5	5.8	1.78	0.004*
	2학년	38.1	23.5	22.3	9.7	m	2.23	
	3학년	44.6	22.9	12.9	13.7	6.0	2.14	
창업교육유무	실시	42.0	22.6	17.2	11.3	6.9	2.19	0.142
	미실시	46.1	23.9	15.7	8.7	5.5	2.04	
계		44.2	23.3	16.4	9.9	6.2	2.10	

* p <.05

11) 적성이 희망 직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적성에 따라 선택하지 않는다” 21.4%, “보통” 28%, “적성에 따라 선택한다” 50.5%로 다른 조건보다도 적성을 우선으로 하여 직업을 선택하려는 학생이 많았다.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의 평균이 3.52, 여학생이 3.24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는 돈이나 명예보다는 적성을 좀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창업교육 유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4> 적성이 희망 직종에 미치는 영향

		전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평균	P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	(%)	(%)	(%)	(%)		
성별	남자	7.8	13.0	26.5	24.6	28.1	3.52	0.025*
	여자	10.2	13.6	34.7	25.4	16.1	3.24	
학년	1학년	11.6	12.4	35.5	22.3	18.2	3.23	0.065
	2학년	6.9	11.7	28.7	27.1	25.5	3.53	
	3학년	8.0	14.9	23.7	23.7	29.7	3.52	
창업교육유무	실시	6.9	12.0	28.5	24.1	28.5	3.55	0.130
	미실시	9.3	14.0	27.7	25.4	23.6	3.40	
계		8.3	13.1	28.0	24.8	25.8	3.47	

* p <.05

2. 실업계 고등학생 창업인식의 차이 분석

1) 창업에 대한 관심도 분석

“창업에 대한 관심도”에 관한 설문 결과는 “관심없다” 31.8%, “보통” 38.4%, “관심있다” 29.6%로 “관심없다”가 높게 나와 창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이 평균 3.05, 여학생 2.81로 남학생의 관심도가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학년이 2, 3학년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창업교육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실시 학교는 긍정적인 답변이 38.3%, 미실시 학교는 22.7%로 차이를 보였다.

<표 15> 창업에 대한 관심도 분석

		전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평균	P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	(%)	(%)	(%)	(%)		
성별	남자	7.0	23.0	39.7	18.6	11.6	3.05	0.029
	여자	12.7	27.1	33.1	21.2	5.9	2.81	
학년	1학년	19.8	30.6	35.5	9.9	4.1	2.48	0.000*
	2학년	5.7	23.9	40.9	18.6	10.9	3.05	
	3학년	4.8	20.5	37.3	24.1	13.3	3.20	
창업교육유무	실시	0.7	22.6	38.3	26.6	11.7	3.26	0.000
	미실시	14.0	24.8	38.5	13.1	9.6	2.80	
계		8.0	23.8	38.4	19.1	10.5	3.00	

* p < .05

2) 창업지식의 습득 경로(학교, 선생님) 분석
 “창업지식의 습득(학교, 선생님) 경로”에 관한 설문 결과는 “학교나 선생님 외의 경로로 알게 되었다” 44.4%, “학교나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 20.6%로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 이외의 경로를 통해 창업 지식을 습득하였음을 나타낸다.

<표 16> 창업지식의 습득 경로 분석

		전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평균	P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	(%)	(%)	(%)	(%)		
성별	남자	12.6	31.1	36.1	14.4	5.8	2.70	0.956
	여자	13.6	33.9	30.5	12.7	9.3	2.70	
학년	1학년	25.6	28.1	28.9	11.6	5.8	2.44	0.008*
	2학년	9.3	33.6	37.2	15.4	4.5	2.72	
	3학년	10.0	31.3	35.7	14.1	8.8	2.80	
창업교육유무	실시	1.5	31.4	40.1	17.9	9.1	3.02	0.000
	미실시	21.9	31.8	30.9	11.1	4.4	2.44	
계		12.8	31.6	35.0	14.1	6.5	2.70	

* p < .05

성별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년별, 창업교육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학년이 2, 3학년에 비해 학교나 선생님께서 창업지식을 습득한 것이 적다는 것은 조사가 학년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창업교육

실시 학교는 학교,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27.0%이고 미실시 학교는 15.5%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창업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창업지식의 습득 경로(매체, 인터넷)분석

“창업지식의 습득(대중매체, 인터넷) 경로”에 관한 설문 결과는 “대중매체나 인터넷 외의 경로로 알게 되었다” 46.4%,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23.1%로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창업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습득하는 경우와 그 비율이 비슷했다. 성별, 창업교육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년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간 평균을 비교해 보면 1학년 2.33, 2학년 2.70, 3학년 2.76으로 1학년이 2, 3학년보다 낮으며 2학년과 3학년은 비슷한 정도를 보였다.

<표 17> 창업지식의 습득 경로 분석

		전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평균	P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	(%)	(%)	(%)	(%)		
성별	남자	19.2	25.9	30.7	15.4	8.8	2.69	0.126
	여자	23.7	28.0	29.7	11.9	6.8	2.50	
학년	1학년	27.3	30.6	29.8	6.6	5.8	2.33	0.004*
	2학년	20.2	22.3	34.4	13.0	10.1	2.70	
	3학년	16.5	28.1	26.9	20.5	8.0	2.76	
창업교육유무	실시	16.1	26.6	31.8	18.2	7.3	2.74	0.097
	미실시	23.3	25.9	29.4	12.0	9.3	2.58	
계		20.1	26.3	30.5	14.7	52.8.4	2.65	

* p < .05

4) 창업 성공인에 대한 관심도 분석

‘대체로 그렇다’ 26.9%, ‘매우 그렇다’ 21.6%로 전반적으로 창업 성공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간의 관심도 차이는 별로 없었으나 창업교육 유무에서는 실시한 학교의 학생들이 월등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창업교육(BizCool) 시간에 배운 창업 성공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8> 창업 성공인에 대한 관심도 분석

		전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평균	P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	(%)	(%)	(%)	(%)		
성별	남자	10.6	11.0	27.9	28.3	22.2	3.40	0.066
	여자	13.6	14.4	32.2	21.2	18.6	3.17	
학년	1학년	14.0	10.7	37.2	18.2	19.8	3.19	0.151
	2학년	10.9	13.8	26.3	27.9	21.1	3.34	
	3학년	10.0	10.0	26.9	30.1	22.9	3.46	
창업교육유무	실시	8.8	9.1	27.7	29.9	24.5	3.52	0.004*
	미실시	13.1	13.7	29.4	24.5	19.2	3.23	
계		11.2	11.7	28.7	26.9	21.6	3.36	

* p <.05

5)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성 분석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성별 차이가 없었고, 비즈쿨의 실시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비즈쿨을 실시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평균 3.05, 2학년 3.34, 3학년 3.47로 전 학년에서 높은 필요성을 보였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필요성이 증대되어 3학년의 진로지도의 내용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표 19>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성 분석

		전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평균	P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	(%)	(%)	(%)	(%)		
성별	남자	6.2	12.0	40.1	22.2	19.4	3.37	0.126
	여자	6.8	11.0	50.8	18.6	12.7	3.19	
학년	1학년	9.1	14.9	48.8	16.5	10.7	3.05	0.003*
	2학년	4.9	13.4	42.9	20.6	18.2	3.34	
	3학년	6.4	8.8	38.2	24.9	21.7	3.47	
창업교육유무	실시	5.8	6.9	39.1	24.5	23.7	3.53	0.000
	미실시	6.7	15.7	44.6	19.2	13.7	3.17	
계		6.3	11.8	42.1	21.6	18	3.33	

* p <.05

6) 창업 희망 시기(졸업 후) 분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창업하고 싶다’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3%가량 높은 것으로 보아 고등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준비나 자신감이 약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과 창업교육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학년의 평

균이 2.69, 2학년이 3.13으로 1학년에 비해 2학년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0> 희망 창업 시기(졸업 후) 분석

		전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평균	P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	(%)	(%)	(%)	(%)		
성별	남자	15.2	19.2	32.9	19.2	13.4	2.96	0.879
	여자	11.9	22.9	33.1	19.5	12.7	2.98	
학년	1학년	19.8	21.5	35.5	15.7	7.4	2.69	0.006*
	2학년	10.1	17.8	36.4	20.6	15.0	3.13	
	3학년	16.5	21.3	28.1	19.7	14.5	2.94	
창업교육유무	실시	14.2	18.2	31.8	19.7	16.1	3.05	0.131
	미실시	14.9	21.3	33.8	19.0	11.1	2.90	
계		14.6	19.9	32.9	19.3	13.3	2.97	

* p <.05

3.. 창업교육에 대한 기대와 평가 분석

1) 창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 여부 분석

‘소규모 벤처창업이나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서 ‘대체로 그렇다’ 28.2%, ‘매우 그렇다’ 16.4%로 ‘아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석에서 호응도가 높게 나왔다. 그렇다는 응답이 1학년 43%, 2학년 37.7%, 3학년이 52.2%로 3학년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21> 창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여부 분석

		전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평균	P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	(%)	(%)	(%)	(%)		
성별	남자	4.4	7.0	44.1	28.7	15.8	3.44	0.769
	여자	2.5	11.0	41.5	26.3	18.6	3.47	
학년	1학년	3.3	8.3	45.5	24.8	18.2	3.46	0.021*
	2학년	4.5	9.7	48.2	24.3	13.4	3.32	
	3학년	4.0	5.6	38.2	33.7	18.5	3.57	
창업교육유무	실시	5.1	6.9	38.7	30.7	18.6	3.51	0.202
	미실시	3.2	8.5	47.5	26.2	14.6	3.41	
계		4.1	7.8	43.6	28.2	16.4	3.45	

* p <.05

2) 교내 창업교육의 진로선택에 기여여부 분석
창업교육이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었는지 묻는 질문에 56.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창업교육

이 학생들의 진로선택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된다. 남녀 간, 학년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창업교육이 스스로 원하는 진로와 적성을 찾도록 돕고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22> 교내 창업교육의 진로선택에 기여여부

		전혀	대체로	보통이	대체로	매우	평균	P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	(%)	(%)	(%)	(%)		
성별	남자	3.4	6.4	32.7	34.5	23.0	3.67	0.593
	여자	1.7	9.3	34.7	33.9	20.3	3.62	
학년	1학년	2.5	7.4	38.8	33.1	18.2	3.57	0.468
	2학년	4.0	6.9	32.0	32.8	24.3	3.66	
	3학년	2.4	6.8	31.3	36.5	22.9	3.71	
창업교육유무	실시	2.6	6.6	30.3	33.9	26.6	3.76	0.040*
	미실시	3.5	7.3	35.3	34.7	19.2	3.59	
계		3.1	7.0	33.1	34.3	22.5	3.66	

* p < .05

3) 교내 창업교육 실시 시 참여 여부 분석

학교 내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43%, ‘아니다’라는 응답이 19.3%로 높은 참여의사를 보였다. 성별, 학년별로는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창업교육 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아 비즈쿨에 대한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

<표 23> 교내창업교육 실시 시 참여 여부

		전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평균	P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	(%)	(%)	(%)	(%)		
성별	남자	7.2	12.4	37.3	23.2	19.8	3.36	0.739
	여자	7.6	10.2	39.8	27.1	15.3	3.32	
학년	1학년	7.4	14.0	33.1	28.9	16.5	3.33	0.879
	2학년	7.7	9.7	42.9	20.6	19.0	3.34	
	3학년	6.8	13.3	34.9	24.9	20.1	3.38	
창업교육유무	실시	5.5	12.0	36.1	24.1	22.3	3.46	0.044*
	미실시	8.7	12.0	39.1	23.9	16.3	3.27	
계		7.3	12.0	37.8	24.0	19.0	3.35	

* p < .05

I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 의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에 관한 관심도 높았다. 이는 고학년일수록 취업 시기가 가까워지고 창업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진로 의식이 저학년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창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비즈쿨 실시 학교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준비와 직업에 대한 성공 자신감, 창업 지식 정도, 창업과 창업 성공인에 대한 관심도, 창업 희망 시기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즈쿨 실시 학교는 ‘학교의 진로지도가 취업 준비 및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비즈쿨 미실시 학교에 비해 현격하게 높게 나타나 비즈쿨이 진로 의식 변화, 창업 인식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창업교육에 대한 기대 및 평가에서 성별, 학년별 차이는 없었으며, 비즈쿨에 참여한 학생들이 실업문제나 중소기업의 활성화, 진로 선택 문제 해결 등에서 창업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즈쿨 실시 학교 학생들이 비즈쿨 참여에 대한 희망이 높게 나타나 비즈쿨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실업계 고등학생의 대부분이 진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해 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형편이므로 현재 공업계와 상업계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비즈쿨의 확대와 더불어 교재내용의 다양화를 통해 각 학교에 적절한 창업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업계 학생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시청각 자료 활용,

현장학습, 사례연구, 체험학습 등의 수업방식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창업에 관한 각종 대회와 동아리 활동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창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진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며, 입학 시 진로에 대한 흥미와 욕구가 고학년이 되면서 감소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꿈과 자신감을 심어 주고 비즈쿨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실업문제는 물론이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권영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창업교육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권순현, 정보화 사회에서의 효과적인 직업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비즈쿨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 2003.

김남숙(1999), 우리나라 창업교육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식, 상업교육의 변화추세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13(1), 1997.

박성미,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상태에 따른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6(1), 2004.

박윤희, 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창업교육 활성화 연구, 상업교육연구, 2(1), 2001.

이명자, 창업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장우, 미국 4개 대학의 창업교육 현황과 특징, 벤처경영연구, 1999.

백형기,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전략, 미래와 경영, 2000.

박재병, 실업계 고등학교 Bizcool(창업교육)의 내용과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장민경, 비즈쿨(BizCool)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학생·교사들의 인식 조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전병유,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 2001.

정태화, 직업교육의 새로운 도전으로서 창업교육, 대한공업교육학회지 77(2), 1996.

정태화,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2000.

차타순·안창규, 진로선택을 위한 Holland의 직업적 성격 유형론, 수산해양교육연구 8(1), 1996.

하인호, 위기의 실업교육 그리고 희망만들기, 새교육 2월호, 교육인적자원부, 2001.

허정국,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실태와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Bechard, J. P. and J. M. Toulouse, Validation of A Diactics Model for The Analysis of Training Objectives i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 1998.